

# 구례군, 빈집 철거 최대 150만원 지원

### 빈집정비사업 총 20동에 3천만원 수립

### 방치된 빈집 철거로 범죄·안전사고 예방

구례군이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2021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자체재원 3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1동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서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 및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2월 25일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20동을 선정했다.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11월까지

준비완료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하늘에서 본 장성공설운동장 공사 현장. 현재 공정을 8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드론사진=장성군 제공)

## '5월 완공' 장성공설운동장 공정률 85% 5000석 규모에 황룡강 꽃단지 조성 화로 랜드마크 기대

장성군민의 숙원 사업인 옐로우시티 스타디움(공설운동장) 건설 공사가 순항하고 있다.

장성군은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오는 5월 성공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봄·가을 노란꽃잔치로 유명한 황룡강변 기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4층 규모로 관람석은 총 5000개이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동과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 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씨름장, 소공원, 주차장이 들어선다.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장성군은 운동장과 도로 포장, 관람석 설치, 수변공원·소공원 조경 작업 등 남은 공정을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근에 조성하는 수변공원은 공설운동장과 연계시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 황금물빛 정원, 암석 수국원, 초화류 정원, 데크 쉼터,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장성군은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흥길동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은 군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건립 중인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군민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고품격 체육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채본부

## 담양군, 서울시 학교·공공급식 납품 활성화 추진

### 농산물 안정 공급 위해 안전성 검사 3물류비 지원



담양군은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 성북구 등 15개 자치구에 공급되는 담양산 공공급식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공급식 물류비 1억 3천만 원, 납품 식재료 잔류농약 및 GMO 정성검사 등 농

산물 안전성검사에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 운송거리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공급업체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담양산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공급업체인 담양농협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368명, 작목반 13개, 생산자조직 143명과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임산부꾸러미,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안전한 학

교급식 공급사업 등으로 5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 공공급식센터를 준공하며 친환경 농산물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해 전라남도 전역의 비유전자변형 물류 허브 역할 수행과 더불어 담양산 농산물의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친환경 공공급식 납품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승 친환경유통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와 지역 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구례군, 53ha 산림에 125만 그루 나무 심기

구례군이 올해 53ha의 산림에 4억3천만 원을 투입해 125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의 탄소흡수 저장능력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나무심기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높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발맞춘 정책이다.

군은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등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큰 나무공익조림 5ha, 산사태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10ha, 양질의 목재를 지속해서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경제림 32ha, 단기소득을 창출하는 특용수림 6ha 등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 편백, 백합나무, 호두, 음나무 등 124만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광덕지구 도시재생 대학 개강

###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운영...주민 주도 구도심 활성화 기대



화순군은 지난 8일 마을공동체혁신센터에서 광덕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대학'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대학은 마을 현안 발굴·

해결에 관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시민 참여 교육이다.

지역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다음 달 12일까지 6주 동안 총 6차례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현장 조사 및 분석 ▲사업 도출 ▲세부실행계획 마스터플랜 작성 ▲조별 워크숍 결과 발표로 구성됐다.

도시재생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과정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교육에서 지역 주민 20명 이상이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료 주민들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동가로 역할을 해나가며 구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체온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광덕지구 주민은 누구나 화순군 도시재생센터(☎061-379-3640)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곡성군이 지난 9일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가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운영자금에 한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용자

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2억, 법인 및 단체는 3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다.

상반기 대상자로 곡성군에서는 축산 10농가, 농업 9농가, 소상공인 3농가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곡성=양해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